

하나님 영광의 날 - 사랑의 영광 받고 싶다

2009. 12. 31. (목) 새벽 3:40~4:00

정향정 (인천 희망 교회 교역자)

[ 새벽기도 중 '하나님의 영광의 주간에 하나님은 어떤 영광 받고 싶어하실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던 중 받은 글 ]

주의 사랑하는 주의 사랑들아. 사랑하고 사랑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하늘의 계획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영광 받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섭리사 사람들아.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 위해 주의 어머니 위해,  
예수, 오직 주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영광 돌려야 하도다.

사랑하는 섭리사 사람들.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사랑의 영광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주만 의지하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려야 한다.  
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각자의 개성대로 돌려다오.  
주 만드신 창조목적을 이뤄다오.  
사랑이야 사랑.  
다 모두 사랑이야.  
사랑을 주어라. 나에게만 주어라.  
사랑하는 선생을 뵈라. 그렇게 해야지.  
사람 의식 말고 오직 나를 의식해서 하라.  
사명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주 섬기는 마음이 가득해야지.  
사랑만이 나의 기쁨이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만을 원하도다.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다오.  
주 마음에 가득 사랑을 주어라.  
사랑의 주 사랑의 영광 돌려라.  
신부야 섭리사야 주사랑들아.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어 오직 하늘의 기쁨이 되어다오.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오직 나 여호와 주 예수의 마음 기쁘게 해다오.  
주 하나님 이 날을 기다리도다.  
주 성령님 이 날을 기다리도다.  
사랑을 원하는 주 예수도 정말 이 날을 기다리도다.  
주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다리며  
하늘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려 준비하도다.

(그럼 하늘나라는 하나님 영광 주간동안 어떠한지 물으니)

하늘에서는 영광의 주간 동안 오직 전심으로 모두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찬송과 춤과 주의 사랑이 가득하도다.  
주 하나님 기뻐하며 모든 영광 다 받으시도다.  
나도 이 날은 우리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도다.  
주 예수 나의 아버지께 영광으로 화답하여라.  
사랑하는 섭리사야 너희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다오.  
내 마음가는대로 만물들 세상이 가도다.  
주의 사랑하는 섭리사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주간이 되자.  
이 주간에만 하지 말고 매일 아니 평생하자.  
영원히 그 나라 와서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해야지  
누가 나에게 영광 돌리겠느냐. 사랑하자.  
사랑의 영광이 제일이다.  
사랑이다. 사랑. 주만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도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 주간이 되어 사랑하며 영광 돌려다오.  
주 예수.